

706km다. 고속도로 3개 노선 74km, 일반국도 5개 노선 192km, 국가지원지방도 1개 노선 17km, 광역시도 492개 노선 1천111km, 구·군도 6천242개 노선 1천870km, 농어촌도로 145개 노선 376km, 비법정도로 88개 노선 67km다.

도로율은 20.64%, 도로개설률 62.49%, 포장률 97.05%, 계획도로율은 33.02%이다.

보 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8개, 병원 9개, 의원 589개, 한의원 287개, 치과의원 378개, 보건소 5개, 보건지소 8개, 보건진료소 11개 등 총 1천377개소다. 의약품 판매업소로는 약국 405개, 의약품도매상 47개, 약업사 3개, 한약업사 10개, 의료기기관매업 612개 등 총 1천77개소가 있다.

공중위생업소는 2017년 말 기준 숙박업 753개, 목욕장업 201개, 이·미용업 3천855개, 세탁업 509개, 위생관련업 427개 등 모두 5천754개소이고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등 10여개 업종 2만5천799개소가 있다.

문 화

문화재단 출범 2017년 1월 1일 1차 4팀 20명으로 (재)울산문화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울산의 문화예술교육,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단체 육성, 창작공간 운영 등 15개 사업에 92억원을 지원했다. 지역문화진흥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행사 광역시 승격 20주년 및 '2017 울산 방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제26회 전국무용제를 개최했다. '울산전국합창경연대회 & 페스티벌', 울산방문의 해 기념 '3계절 테마 문화공연 및 IT대회' 등 전국 규모 행사를 진행하고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문화시설 울산박물관을 비롯한 박물관 10곳, 문예회관 5곳, 문화원 5곳, 공연장 25곳, 야외공연장 11곳이 있으며 지역예술인을 위한 공연연습장인 아르크공연연습센터@울산이 2017년 11월 개관했다.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인 어린이테마파크를 2017년 4월 착공했고 2016년 7월 건립부지가 확정된 시립미술관의 토지보상을 마무리했다.

문화재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해 국보 2점, 보물 7점, 사적 6점, 천연기념물 4점, 국가기념물 2점, 등록문화재 6점, 시 유형문화재 34점, 시 무형문화재 5점, 시 기념물 46점, 시 민속문화재 1점, 시 문화재 자료 등 총 143점이 있다. 울산2경으로는 태화강대공원과 십리대숲, 대왕암공원, 가지산 사계, 신불산 역사평원, 간절곶 일출,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 강동·주전 몽돌해변, 울산대공원, 울산대교,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외고산 송기마을, 대운산 내원암 계곡이 있다.

〈정당별 의석〉 자유한국당 21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

의정 주요활동 및 성과 제18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93회 2차 정례회까지 8차례 회기 운영을 끝으로 2017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적극적인 시정 견제 및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116일간의 회기 운영을 통해 원안 가결 196건(92%), 수정안 가결 12건(5.6%), 기타 5건(2.3%) 등 총 21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시정질문 12건, 서면질문 62건, 5분 자유발언 23건을 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울산시와 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고, 울산시 3조4천268억원, 교육청 1조6천562억원을 확정·의결했다.

지역 현안에 한발 빠른 대응 '현대중공업 분사 사업장 및 연구기능의 지역 존치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 연장'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총 14건의 결의안을 발의해 모두 원안채택 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 의정홍보관을 운영해 시민들이 도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모바일 생방송,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공개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회의실을 개방해 1천589명의 시민과 학생이 방청 및 참관(견학)했으며, 청소년 모의의회 교실, 의회사랑 스피치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정활동 실천 6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의정자문위원회(4개분야 17명)를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 제언을 했다.

도시품격발전연구회, 맞춤형복지전달체계 지원 연구회, 안동도시 울산연구회, 신성장동력연구회, 산업단지주변지역 발전 및 문화유산보존연구회, 지방의회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연구회 등 6개 의원 연구단체가 2017년 한 해 이슈 및 시정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종특별자치시

市花 : 복숭아꽃 市鳥 : 파랑새

市木 : 소나무 캐릭터 : 새빛이, 새날이



시청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본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군청로99(조치원청사)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원수산로 36(별관)

시장 : 이춘희(李春熙)

의회활동

원 구성

〈의 장〉 윤시철(자유한국당)

〈부의장〉 이성룡(자유한국당), 변식룡(자유한국당)

개 관

연 혁 세종특별자치시는 서울에 밀집돼 있는 행정기관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충청남도 연기와 공주 일부

구분	면적(km ²)	인구(명)				행정리	법정리(동)	통	반
		계	남	여	외국인				
합계	464.8	280,100	139,734	140,366	4,125	267	125(11)	174	2,454
조치원읍	13.7	45,413	23,193	22,220	1,207	36	14	-	538
연기면	43.9	2,778	1,533	1,245	101	15	9	-	58
연동면	28.3	3,453	1,788	1,665	160	26	10	-	69
부강면	27.8	6,509	3,476	3,033	230	31	8	-	88
금남면	78.1	9,378	4,887	4,491	257	43	27	-	168
장군면	53.2	6,356	3,528	2,828	315	23	14	-	94
연서면	54.6	7,929	4,226	3,703	268	26	13	-	128
전의면	62.4	6,356	3,294	3,062	421	33	15	-	104
전동면	57.7	3,927	2,138	1,789	177	23	11	-	61
소정면	16.5	2,834	1,477	1,357	200	11	4	-	33
한솔동	2.9	20,057	9,822	10,235	151	-	(2)	22	180
도담동	4.7	23,303	11,307	11,996	43	-	(2)	35	201
아름동	2.2	32,554	15,755	16,799	178	-	(1)	16	116
중촌동	1.1	24,431	12,002	12,429	133	-	(1)	21	157
고운동	5.4	30,533	14,737	15,796	114	-	(1)	24	150
보람동	7.3	26,372	12,864	13,508	24	-	(4)	56	309

지역에 만든 행정복합도시이다.

이 지역은 삼한시대엔 마한, 삼국시대엔 백제에 속했다. '연기'라는 지명은 통일신라시대 연기현에서 유래했다. 조선시대 고종 32년(1895년)에 연기군과 전의군으로 개편됐다가 1914년 이후 연기군으로 통합됐다.

최초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추진됐다. 당시 공주 일대를 후보로 설계가 진행돼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던 중 1979년 10.26 사태로 중단됐다.

이후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했다. 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2003년 4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지원단이 발족됐다. 같은 해 7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이 입법 예고됐고,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 등)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 헌법이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도 이전은 법률 제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일부 행정 부처만 세종시로 이전하게 됐고, 정부는 2006년 건설교통부 외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립했다. 같은 해 12월엔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을 '세종'으로 확정했다.

2011년 12월 주민 입주가 시작됐다. 2012년 4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교육감·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유한식·신정균·이해찬이 선출됐다.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정식 출범함에 따라 연기군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됐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거쳐 7월 1일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이춘희 시장이 취임했다.

2017년 말 기준 시청 조직은 1실 6국 1본부 36과이며, 공무원은 일반직 1천311명, 소방직 340명 등 총 1천651명이다.

면적·인구 동쪽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쪽은 충청남도 공주시, 남쪽은 대전광역시, 북쪽은 충청남도 천안시와 접하고 있다. 총면적은 464.8km²로 금남면이 78.1km²로 가장 크고, 전의면 62.4km², 전동면 57.7km², 연서면 54.6km², 장군면 53.2km² 순이다.

총인구는 2017년 말 기준 10만9천490가구 28만4천225명(내국인 28만100명, 외국인 4천125명 등)이다.

재정

2018년도 시 예산총액은 1조5천33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1천320억원과 특별회계 3천713억원으로 나뉜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6천215억원, 세외수입 452억원 등 자체수입이 6천667억원이고, 지방교부세 405억원, 국고보조금 2천134억원 등 의존수입이 2천539억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천14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9.2%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60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546억원, 교육 763억원, 문화 및 관광 647억원, 환경보호 773억원, 사회복지 2천666억원, 보건 315억원, 농림해양수산 778억원, 산업·중소기업 333억원, 수송 및 교통 71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천804억원, 과학기술 106억원, 예비비 및 기타 1천265억원 등이다.

특별회계 3천713억원을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804억원, 하수도사업 741억원, 공영개발사업 434억원, 의료급여기금 196억원, 주택사업 162억원, 도시개발 188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5억원, 기반시설 6억원, 주차장 31억원, 학교용 지부담금 732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억원, 소방안전 374억원, 수질개선 17억원, 특정지원 지역자원시설세 21억원, 광역교통시설 4천만원 등이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1,503,339	1,132,000	371,339
지방세	621,480	621,480	-
보통세	563,500	563,500	-
취득세	277,200	277,200	-
등록면허세	12,300	12,300	-
주민세	7,700	7,700	-
재산세	72,300	72,300	-
자동차세	38,000	38,000	-
담배소비세	16,800	16,800	-
지방소비세	67,900	67,900	-
지방소득세	71,300	71,300	-
목적세	57,780	57,780	-
지역지원시설세	10,180	10,180	-
지방교육세	47,600	47,600	-
2017년도 수입	200	200	-
세외수입	137,479	45,257	92,222
경상적 세외수입	100,493	27,876	72,617
임시적 세외수입	36,986	17,381	19,605
지방 교부세	40,500	40,500	-
보조금	273,745	213,363	60,382
국고보조금	170,794	143,580	27,214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5,879	54,869	31,010
기금	17,072	14,914	2,158
지방채	-	-	-
매출공채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0,135	211,400	218,735
보전수입 등	244,235	105,784	138,451
내부거래	185,900	105,616	80,284

※특별회계 : 2,580억원(기타 특별회계 1,301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279억원)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1,503,339	1,132,000	371,339
일반 공공행정	60,691	60,691	-
공공질서 및 안전	68,592	54,554	14,038
교육	76,302	76,302	-
문화 및 관광	64,661	64,661	-
환경보호	228,638	77,272	151,366
사회복지	286,242	266,651	19,591
보건	31,507	31,507	-
농림해양수산	77,793	77,793	-
산업·중소기업	35,597	33,279	2,318
수송 및 교통	74,304	71,722	2,582
국도 및 지역개발	333,132	180,439	152,693
과학기술	10,581	10,581	-
예비비	13,097	11,951	1,146
기타	142,202	114,597	27,605

※특별회계 : 2천580억원(기타 특별회계 1천301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천279억원)

중점 추진사업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당초 행정수도로 계획했던 세종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건설되면서 서울-세종 간 물리적 거리에 따른 국정운영의 비효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종시=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사람중심 행복도시 세종 건설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를 신설하고, 임신·출산·육아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면서 9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2014년부터 5개 분야 132개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해 2017년 11월 국내 광역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했다.

균형발전, 일자리가 있는 세종실현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인 '청춘조직원' 사업을 세종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빈집·저층 주거지 정비, 전통시장 활용, 일자리와 사회적 경제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먹거리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자는 로컬푸드 운동으로 개설한 도담동 싱싱장터(직매장 1호점)가 1일 평균 매출액 4천만원, 회원 수 2만2천여 명, 참여농민 700명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2017년 한해 우량기업 59개사를 유치했으며, 폴리텍대학 세종분원이 개원돼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됐다.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할 SB 플라자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돼 2018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열린시정, 시민우선시정 구현 소통 강화를 위해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53회 개최하고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똑똑세종' 제안제도를 운영했다.

시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모바일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입주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이동민원실을 운영했다. 고운·보람·새롬동 주민센터를 개청하고 조치원읍에 여권창구를 개설했다.

산업

공업 제조업체 수는 793개소로 총 2만1천324명(산단 포함)이 일하고 있다. 업체 규모별로는 1~9인 사업체 411개소(1천889명), 10~49인 사업체 304개소(6천609명), 50~99인 사업체 45개소(3천085명), 100~299인 사업체 21개소(3천230명) 300인 이상 사업체 12개소(6천511명)가 있다.

농업 2017년 12월 말 기준 농가 수는 6천304가구에 1만4천982명이다. 경지면적은 8천102ha이고 경지정리율은 81%다.

산업단지 총 473만2천㎡에 125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9천524명이 일하고 있다. 조치원산단(1공구·공구·공구), 소정산

단, 부강산단, 전의·산단, 명학산단, 미래산단, 첨단산단(1공구), 노장농공단지, 응암농공단지, 청송농공단지, 부용농공단지가 있다.

사회

주택 2017년 12월 말 기준 단독주택 1만4천935호, 아파트 8만5천733호, 연립 913호, 다세대 1천499호, 비거주용 664호 등이며 주택 보급률은 109%다.

상·하수도 상수도 하루 급수량은 7만5천670m³, 보급률은 92.7%, 하루 1인당 급수량은 287ℓ다. 2017년 기준 하수처리 인구는 총인구 28만4천353명 중 26만2천262명으로 92%의 하수도 보급률 기록하고 있다.

교통 자동차 등록 대수는 13만1천358대다. 도로 연장은 총 641.32km로 고속국도 18.53km, 일반국도 70.96km, 국가지원지방도 25.45km, 시도 287.50km, 농어촌도로 238.88km며, 도로율은 77.1%다.

주차장은 공영 37개소 1천185면, 민영 13개소 647면, 부설 4천 900개소 1만2천877면으로 총 4천950개소 1만4천709면이다.

시외버스는 조치원에서 8개 노선(72회), 대평동에서 34개 노선(207회)이 운행한다. 고속버스는 조치원에서 1노선(조치원→서울) 15회, 대평동에서 8개 노선(93회), 국책연구단지 1개 노선(20회)이 운행한다. 오송과 반석역을 오가는 BRT 운행 횟수는 하루 왕복 129회, 내부순환 BRT 운행 횟수는 하루 왕복 71회다.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연 이용자 25만9천250명)를 비롯, 노숙인 시설 1개소(102명 수용), 지역자활센터 2개소(연 이용자 1만2천600명) 등이 있다. 자원봉사자는 4만5천931명이 있다.

환경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465km²다.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13t으로 매립률 11.1%, 재활용률 41.8%, 소각률 47.1%다.

보건 의료기관은 총 395개소로, 종합병원은 없으며, 병원 8개, 의원 148개소, 치과병(의)원은 72개소, 한방병(의)원 67개소, 약국 109개소 등이다.

교육·문화

교육 학교 수는 총 151개교로 유치원 59개소(5천791명), 초등학교 47개교(2만2천230명), 중학교 23개교(9천55명), 고등학교 14개교(7천758명), 특수학교 1개교(118명), 대학(교) 4개교에 학생 수는 1만6천261명이다.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물 2, 천연기념물 1, 중요민속문화재 1 등 4건이고 시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3, 무형문화재 3, 기념물 11, 문화재자료 13 등 40건으로 총 44건의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 공연시설로 공연장 1개, 영화상영관 14개 등 총 15개소와 문화원 1개소가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세종시문화예술회관은 무대면적 765m², 좌석 수 870석이며, 295.80m²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체육시설 등록체육시설업으로 골프장 2곳이 있다. 신고체육 시설업으로 체육도장 100개소, 골프연습장 36개소, 체력단련장 31개소, 당구장 83개소, 무도학원 2개소 등 총 264곳이 있다.

문화축제 '용암강다리기'(대보름), '세종 조치원 복숭아 봄꽃 축제'(4월), 영평사 '장군산 구절초 꽃축제'(9월)가 있으며 10월 초 세종축제구간이 지정돼 '세종축제'가 열리고 있다.

관광 국내 최대 인공호수와 대통령기록관이 조성돼 있는 세종호수공원, 세종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밀마루전망대, 조세박물관, 자동차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세종합강캠핑장 등이 있다. 그 외 전의초수, 김종서장군묘, 뒤웅박고을, 베아트리카크, 고북자연공원, 교과서박물관 등이 관광명소로 꼽힌다.

의회활동

원 구성

〈의장〉 고준일

〈부의장〉 이경대, 김원식

〈정당별 의원 현황〉 자유한국당 5명, 더불어민주당 9명, 바른정당 1명이다.

의안처리 정례회 2회(70일), 임시회 4회(54일) 등 총 6회 124일간의 회기를 운영했고 조례안 13건, 예산 및 결산 17건, 동의안 62건 기타 안건 38건 등 모두 2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심의 본예산 1회, 추경 3회 등 총 4차례 심의했으며,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본예산 1조5천 33억원, 교육비특별회계 7천23억원을 확정하는 등 총 1조9천56억원을 심의·의결했다.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왕성한 입법활동 2017년 조례안 131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은 각각 56건과 9건이며 위원회안은 1건이었다. 의원 발의는 66건으로 의원당 4.7건의 조례를 발의해 처리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구의회 정부세종청사 시대에 맞춰 광역의회의 기틀을 다지고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회에 걸쳐 전체 의원 대상 의정연수를 통해 입법과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의정실무능력과 의정수행역량을 강화했다.

현장중심 의정활동 1월 26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인 금이성마을과 방주이집, 세종행복요양원을 방문해 위문했다.

3월 21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는 첫마을 내 참샘초등학교와 조치원을 세종고등학교를 방문해 스마트 교육환경 확인 및 학교 급식상태를 점검했다.

4월 18일 의회사무처 직원과 함께 '새봄맞이 지역하천 가꾸기' 일환으로 방축천 일대 쓰레기를 수거하고 하천 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6월 22일 제43회 정례회 기간 중 가뭄이 심각한 연동면·부강면 일대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피고 긴급용수 확보 등 가뭄종합대책을 점검했다.

7월 27일 의원·사무처 직원들이 기습폭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옥화리를 찾아 피해복구작업을 도왔다.

6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은 제44회 임시회 기간 중 세종시 아동복지시설 영명보육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보육원의 운영·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9월 14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는 제44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시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도봉구 마을방과후활동 운영센터를 방문해 타 시·도의 협동조합, 마을방과후학교사업 등의 추진상황 및 운영 노하우를 살폈다.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이)는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을 캐치프레이즈로 10월 7일 호수공원 축제장, 26일 여수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장, 12월 14일 광화문에서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김정봉 의원 대표)은 세종시 여건에 맞는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하고자 간담회(4회)와 관내 오염배출시설 방문(3회)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박영송 의원 대표)은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간담회, 한국잡월드(성남시)·기적의 놀이터(순천시) 현장방문,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 초청특강 등 7차례 연구모임(회의 4회, 현장방문 2회, 토론회 1회)을 실시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10개 사업 예산 99억3천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하고, 관련된 조례 3건을 제정했다.

농축산발전연구임(이종열 의원 대표)은 타시도 농축산업 우수사례 견학 및 세종시 6차산업 발전방향과 도농 간 상생방안 등에 관한 토론회 등 6차례 연구모임(회의 3회, 토론회 1회, 현장방문 2회)을 실시했다. 타 지자체 정책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농축산업 지원 및 육성정책을 담은 조례 2건을 제정했다.

지역현안 관련 의정활동 전개 1월 20일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와대 및 국회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3월 24일 제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4월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읍면동이·통장협의회장들과 시정 발전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0월 25일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된 공공시설인수점검특별위원회(위원장 인천영),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행정수도완성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이)도 간담회 개최,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꾸준히 펼쳤다.

개관

연혁 경기도 지역은 백제의 시조 온조가 기원전 18년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이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삼국의 끊임없는 각축장이 됐다. 5세기 중엽 고구려에 병합됐던 한강 유역은 557년(진흥왕 18년) 신라의 영토가 됐다.

고려 현종 때 개성지역을 경기(京畿)라 칭했으나 현재 행정구역과는 차이가 크고, 조선 태종 16년(1416년) 전국이 8도 체제로 나뉘고 후 세종 16년(1434년)에 이르러서야 한양 주변 지역이 현재의 '경기'로 확립됐다.

고종 32년(1895년) 23부제(府制) 실시로 경기도는 3부(한성·인천·개성) 34군으로 분리되면서 소멸했다가 1896년 13도제 실시에 따라 부활했다. 1910년 중앙직할지였던 한성부가 경성부로 개칭돼 경기도에 편입됐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종래의 4부 34군이 2부 20군이 됐고, 충청남도도 충청북도 일부 지역이 각각 평택군과 이천군에 편입됐다.

1945년 경성부가 서울시로 개칭됐고, 1946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로 승격돼 경기도에서 분리되며 고양군, 시흥군 일부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됐다. 1949년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인천부, 개성부는 각각 시로 개칭됐으며, 수원읍이 수원시로, 시흥군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됐다. 고양군의 3개 면은 서울특별시로 편입됐다.

1967년 서울시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했다. 1971년 광주군의 4개 면을 중심으로 성남출장소가 설치됐다. 1973년 안양읍이 안양시, 소사읍이 부천시, 성남출장소가 성남시로 각각 승격되면서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6시, 18군이 됐다.


1981년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분리됐으며, 양주군 동두천읍이 동두천시, 평택군 송탄읍이 송탄시, 시흥군 소하읍이 광명시로 각각 승격됐다. 1982년 시흥군 과천면에 과천출장소가 설치됐다. 1986년에 구리읍, 평택읍, 과천출장소, 만일출장소가 각각 구리시, 평택시, 과천시, 안산시로 승격돼 경기도는 12시 19군을 관할하게 됐다.

1989년 5월 성남시에 수정구와 중원구가 설치됐다. 1991년 9월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분당출장소가 분당구로 승격됐다. 1992년 2월에는 고양군 전체가 고양시로 승격되면서 경기도 행정구역은 19시, 17군이 됐다.

1995년 1월 도농복합 형태의 시·군 통합이 시작되면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한 남양주시가 신설됐다. 같은 해 3월 경기도 용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됐고, 5월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등 3개 시·군이 평택시로 통합됐다.

1996년 3월 용인군, 파주군, 이천군이 각각 시로 승격됐다. 일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고양시에 1996년 3월 덕양구와 일산구가 설치됐다. 1998년 4월 안성군과 김포군이, 2001년 3월 화성군과 광주군이 각각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되면서 25시 6군이 됐다.

2002년 11월 1일 안산시에 단원구와 상록구가 설치됐다. 2003년 10월 19일 포천군과 양주군이 각각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됐으며, 같은 해 11월 24일 수원시에 영통구가 설치됐다. 2005년 4월 8일 고양시 일산구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됐으며, 같은 해 10월 31일 용인시에 처인구, 기흥구, 수지



경기도

道花 : 개나리 道鳥 : 비둘기
 道木 : 은행나무 캐릭터 : 불루링

도청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도지사 : 남경필(南景弼)

